

오래된 식탁 위의 당연했던 풍경

어릴 적 우리 집 저녁 풍경은 늘 하나의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흘렀다. 퇴근 후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손은 늘 비어 있었고, 거실 한편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동안 어머니는 부엌에서 맹렬한 소리와 연기를 내뿜으며 저녁 상을 차리셨다. 찌개가 끓고, 생선이 익어가고, 수저가 놓이는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어머니 혼자만의 무대였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했고, 어머니는 집안을 살피는 주부로서의 헌신이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문장은 당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담장 넘어 이웃들의 집에도 당연하게 자리 잡은 불문율이었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그 풍경을 보며 자랐기에, 그것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고단함 위에 올려진 평화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몇 년 전, 평생을 마다하지 않고 집안일을 해오시던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을 때였다. 프라이팬을 들기조차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우리 가족의 일상은 순간 정지했다. 그리고 그 정지된 일상 앞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아버지의 서툰 모습은, 그동안 우리 가정이 의존해 온 역할 분담이 얼마나 불균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밥솥을 열며 시작된 성역할의 고정관념 깨기

“오늘 저녁은 내가 한번 해보마.”

어머니의 손을 대신하기 위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던 날을 잊지 못한다. 처음에는 찌개 간을 맞추지 못해 물을 붓고 또 부으며 허둥대셨고, 설거지를 마친 개수대 주변은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검색하고,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 오기 시작하셨다.

나 역시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 옆에 섰다. 나물 재료를 듬성듬성 썰고, 생선을 구우며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는 내 가슴을 톡 건드렸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구나. 살림이라는 게 퇴근도 없고 끝도 없는 노동인데, 이걸 혼자 다 하게 했으니...”

아버지가 부엌이라는 공간을 ‘어머니 전용의 영역’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공동 공간’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 집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순식간에 깨어져 나갔다. 집안일은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타고난 본분이 아니라, 그 집에 함께 사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당연한 삶의 기술이라는 점을 가족 모두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집은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누어진다. 아버지는 메인 요리와 청소를, 어머니는 세탁과 정리를, 나는 장보기와 식기세척기 정리를 맡는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아닌, 각

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춘 공평한 분담이다. 부엌에서 함께 양파를 까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 동안, 우리 집 저녁의 온도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

생활 속 양성평등,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존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거창한 담론이나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돌아오는 저녁 상을 차릴 때,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손을 보태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남성다운 일’과 ‘여성다운 일’이라는 낡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셨을 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얻으셨듯 말이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극복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가사와 돌봄의 공평한 분담은 단순히 노동의 양을 반으로 나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자 양성평등 실천의 첫걸음이다.

오늘도 우리 집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분법적인 틀을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작은 부엌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양성평등 사회의 작지만 가장 확실한 모형이다.